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12년 6월 pp.281~295

한국세무학회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

- 이익지속성을 중심으로 -

서승철* · 위준복**

<요 약>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를 기업의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이익지속성과 관련하여 검정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보고된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다.

선행연구(최 관과 백원선 1998 ; 박종성 1999)에 의하면 감리지적기업은 재량발생액이 크며, 이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나타낸다. 즉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이익은 이익조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익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감리지적이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의 감소 혹은 감사품질의 증가 등으로 이익조정이 감소된다면 이익지속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감리지적 이후에 이익지속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E_{t+1})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 감리지적기업은 지적조치 전에 비해 지적조치 후에 이익지속성이 향상됨으로써 보고된 이익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모두에서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리지적으로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억제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인의 감시를 통한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주제어> 감사보고서 감리제도, 이익지속성, 이익조정, 감사품질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lyscos@hanmail.net, 016-649-8884, 주저자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bwhee@chonnam.ac.kr, 062-530-1471, 교신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익지속성과 관련하여 실증분석한다. 경영성과인 회계이익은 기업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재무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고 신뢰성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외부감사인인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작성했는지를 독립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높은 품질의 감사수행을 통해 회계부정 혹은 분식회계를 방지하고자 회계감독기관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여 왔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함으로써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및 수시감리로 나뉘며 일반감리는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다. 특별감리는 증권선물위원장의 지시, 기타 중대한 분식회계처리를 한 회사 혹은 부실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감사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감리이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예정회사 등 수시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기업은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증가할 것이며, 분식회계 등에 의한 지적이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 해태에 기인할 경우 그 감사인은 감사제한 등의 처벌과 법적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리지적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감시증가로 적절한 감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감사인의 비용 증가는 감사품질 증가로 이어져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가 감리지적기업에서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정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연구마다 서로 다른 감사품질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도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감리제도의 유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본 연구는 감리지적 후에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이익지속성이 증가되는지를 검정함으로써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이익지속성을 순이익의 1차자기상관관계(first-order autocorrelation)로 측정할 때 이는 차기 이익과 당기이익간 공분산을 당기이익의 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경영자가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당기이익을 조정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차기이익과 당기이익간 공분산이 적어지거나 당기이익의 분산이 커질 것이다.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이익에는 이익조정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익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근거하여 감리지적이후에 이익지속성이 향상되는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감리지적 이후에 이익지속성이 증가되고 그것이 발생액의 지속성증가에 기인한다는 본 연구의 예상과 분석결과가 일치한다면 이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은 감리지적 전에 비하여 감리지적조치 후에 이익지속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모두에서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행위의 억제 혹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차원에서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그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며,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1. 선행연구 검토

가. 감리제도와 관련된 연구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는 감리지적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감리지적에 대한 시장반응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감리지적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 관과 백원선(1998)은 1990-1996년까지 증권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일반감리에서 이익조작사유로 감리지적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감리지적기업은 금융부담이 크고, 전기수정손익이 크며, 재량발생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종성(1999)은 1990-1995년 사이에 일반감리대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회사 특성과 감사인 특성을 이용하여 감리지적 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피감사회사 특성변수(상장기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발생액) 중 부채비율과 발생액이, 감사인 특성변수(산업전문감사인, 감사인 명성, 수임료, 의존도, 계속감사기간) 중 계속감사기간이 감리지적예측에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최 관과 최국현(2003)은 금융감독원 감리지적기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지적기업을 구분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였다. 금융감독원 감리에서는 38개 특성변수 중 21개 변수가 감리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반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는 4개 변수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결과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감리지적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손성규와 박종성(1998)은 감리지적 전후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감리는 투명한 재무제표공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준화와 배길수(2004)는 회계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계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감리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감사실패가 감리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 감리가 감사실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낮다고 주장하였다. 정태범(2008)은 감리결과 회사에 부과하는 조치내용이 감리 이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조치를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제재사항의 이행내역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감리조치 후에 재량발생액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의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우수한 감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회계정보의 질이 높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감사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감리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학계나 실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희(2009)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과 감리를 받지 않았거나 감리를 받았더라도 감리지적사항이 없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제도가 감사품질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 재량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의 크기뿐만 아니라 감사대상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측정된 적정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을 기초로 감사보수의 할인(또는 할증)과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또는 증가)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감리지적기업에서의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이 감리 비지적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적기업에서는 보수할인과 그로 인한 감사투입시간의 감소가 발생한 반면 지적기업에서는 보수할증과 높은 감사투입시간을 보여주었으나, 재량발생액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감리지적기업만을 대상으로 감리지적 전후에서의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감리지적 이후의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보수할인(할증)의 정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재량발생액은 감리지적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감사품질의 대응치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사품질의 대응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이후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처벌여부에 따른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제 감사보수와 보수할인(할증) 정도는 감사인 처벌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감사투입시간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감사인이 처벌을 받은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량발생액도 감사인이 처벌을 받은 기업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감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감리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 연구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익조정현상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익조정기업의 이익지속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lon(2005)은 이익조정정보가 포함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와 1기간 후의 이익의 지속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양(+)의 값을 갖는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발생액과 현금흐름의 지속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Revsine et al.(1999)과 Palepu et al.(2000)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검정한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법에 비해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자의성이 많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을 수단으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원선(2008)은 3분기까지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조정유인에 따라 4분기이익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간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분기이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유인이 있는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3분기까지의 경영성과에 따라 4분기이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유인이 존재한 기업에서 이익을 조정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익조정기업의 경우에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이익지속성이 보다 낮아지며, 이는 이익조정에 이용된 수단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 감소에 기인한다.

서승철(2011)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세금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Phillips et al. 2003 ; Calegari 2000)에 착안하여,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이익상향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감리지적기업의 지적 전에 보고된 회계이익에는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상향조정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최 관과 백원선 1998 ; 박종성 1999). 또한 경영자에 의한 이익상향조정은 이익지속성을 저감시킨다(Hanlon 2005 ; Revsine et al. 1999 ; Palepu et al. 2000 ; 백원선 2008 ; 서승철 2011).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상향조정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정보는 그 투명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며, 시장의 감시가 증가할 것이다. 감리지적사유가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의 해태에 기인할 경우 그 감사인은 감사제한 등의 처벌과 법적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감리지적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리지적기업의 감사인은 시장의 감시증가로 인해 지적이후에 적절한 감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감리지적기업에 대해서 감사품질을 증가시킴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감리지적받은 기업에서 감리지적 이후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의도가 감소되거나 이익조정행위가 억제되어 이익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가설을 대립가설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가설 :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의 질은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향상될 것이다.

보조가설 1 :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의 지속성은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증가될 것이다.

보조가설 2 :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의 구성요소 중 발생액의 지속성은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증가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1. 연구모형

이익지속성은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로서 Sloan(1996)이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김문철과 최 관 1999 ; Schipper and Vincent 2003 ; Francis et al 2004). 이익지속성

(earnings persistence)은 당기이익이 미래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당기순이익(E_t)과 차기순이익(E_{t+1})간의 1차자기상관관계(first-order autocorrelation)로 측정된다(Sloan 1996 ; 백원선 2008).

$$E_{t+1} = \alpha_0 + \alpha_1 E_t + \epsilon_{t+1} \quad (1)$$

단, $E_{t(t+1)}$ 는 $t(t+1)$ 년 순이익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가설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2)와 모형(3)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감리지적기업에서 감리지적 이후에 이익지속성이 높아지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회귀모형(2)이 이용된다. 또한 감리지적 이후에 이익지속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발생액의 지속성에 기인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회귀모형(3)이 이용된다. 여기에서 E_{t+1} 은 종속변수로서 $t+1$ 년도 순이익이며 VD 는 감리지적 전후더미를 나타낸다.

보조가설 1이 지지된다면 회귀모형(2)에서 관심변수인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당기이익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E_t$)의 회귀계수인 β_2 가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보조가설 2가 지지된다면 회귀모형(3)에서 관심변수인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총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TA_t$)의 회귀계수인 γ_3 가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E_{t+1} = \beta_0 + \beta_1 E_t + \beta_2 VD \cdot E_t + \beta_3 SIZE_t + \beta_4 LEV_t + \epsilon_{t+1} \quad (2)$$

$$E_{t+1} = \gamma_0 + \gamma_1 CFO_t + \gamma_2 TA_t + \gamma_3 VD \cdot TA_t + \gamma_4 VD \cdot CFO_t + \gamma_5 SIZE_t + \gamma_6 LEV_t + \epsilon_{t+1} \quad (3)$$

(변수의 정의)¹⁾

$E_{t(t+1)}$ = $t(t+1)$ 년도 순이익

CFO_t = t 년도 영업현금흐름

TA_t = t 년도 총발생액(t 년도 순이익 - t 년도 영업현금흐름)

VD = 감리지적 전후더미(감리지적 후이면 1, 감리지적 전이면 0)

$SIZE_t$ = t 년도 기말총자산의 자연대수

LEV_t = t 년도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2. 표본선정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였다. 표본기업은 감리지적받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다음의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1) 모든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은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음.

-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제외)
- (2)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데이터베이스에 재무자료가 수록된 기업
- (3) 각 변수를 위한 재무자료가 존재한 기업
- (4) 상장폐지 또는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기업

〈표 1〉 표본선정²⁾

총표본	29개 기업*11개 연도	319개 기업연도
차감 : 당기순이익이 음(-)인 기업표본		142개 기업연도
재무자료가 극단치인 기업표본		1개 기업연도
최종표본		176개 기업연도
감리지적 전 표본		66개 기업연도
감리지적 후 표본		107개 기업연도

금융업의 경우 영업특성 및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의 특성이 다른 업종들과 상이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결산법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재무지표 및 비율이 일반기업과 다른 목표와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당기순손실기업의 경우 이익지속성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특정표본이 연구결과에 왜곡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무자료가 극단치인 1개 기업표본을 제거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이상치를 ± 3 표준편차로 winsorization 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전체표본 및 집단별 기술통계량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Panel A의 전체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차기이익(E_{t+1})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184와 0.0239로 평균이 중위수 보다 약간 낮고 당기순이익(E_t)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2) 감리지적 전·후의 표본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감리지적 직전년도보다 더 이전의 재무제표가 감리지적 받은 경우가 적지 않고 감리지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표본이 유실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감리지적 전·후의 표본을 기간별로 matching하지 않고 최종 선정된 표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0.0563과 0.0295로 평균이 중위수 보다 약간 높다.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인 영업현금흐름(CFO_t)과 총발생액(TA_t)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0465(0.0455)와 0.0105(−0.0088)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Panel A. 전체 표본					
변수 <N=176>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E _{t+1}	0.0184	0.0239	0.0767	0.2397	−0.2353
E _t	0.0563	0.0295	0.0757	0.4014	0.0008
CFO _t	0.0465	0.0455	0.0981	0.3418	−0.2512
TA _t	0.0105	−0.0088	0.1199	0.4610	−0.2436
SIZE _t	3.7114	1.0328	8.0013	28.4318	0.6393
LEV _t	0.5885	0.6371	0.2218	1.2412	0.0793
Panel B. 감리지적 전 표본					
변수 <N=69>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E _{t+1}	0.0029	0.0144	0.0664	0.0954	−0.2353
E _t	0.0500	0.0225	0.0882	0.4014	0.0024
CFO _t	0.0467	0.0434	0.0849	0.2633	−0.2512
TA _t	0.0058	−0.0096	0.1326	0.4610	−0.2436
SIZE _t	0.9934	0.9917	0.1070	1.4327	0.6836
LEV _t	0.5924	0.6272	0.2442	1.2412	0.0793
Panel C. 감리지적 후 표본					
변수 <N=107>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E _{t+1}	0.0283	0.0275	0.0814	0.2397	−0.2353
E _t	0.0604	0.0347	0.0665	0.4014	0.0008
CFO _t	0.0463	0.0468	0.1061	0.3418	−0.2512
TA _t	0.0136	−0.0081	0.1114	0.4610	−0.1982
SIZE _t	5.4642	1.0677	9.8883	28.4318	0.6393
LEV _t	0.5860	0.6426	0.2072	0.9356	0.1105

(변수의 정의)

$E_{t(t+1)}$ = t(t+1)년도 순이익

CFO_t = t년도 영업현금흐름

TA_t = t년도 총발생액(t년도 순이익 - t년도 영업현금흐름)

VD = 감리지적 전후더미(감리지적 후이면 1, 감리지적 전이면 0)

$SIZE_t$ = t년도 기말총자산의 자연대수

LEV_t = t년도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통제변수인 자산규모($SIZE_t$)와 부채비율(LEV_t)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3.7114(1.0328)와 0.5885(0.6371)로 나타났다. Panel B의 감리지적 전 표본과 Panel C의 감리지적 후 표본의 기술통계를 비교해서 보면, 감리지적 후 표본에서의 차기이익(E_{t+1})과 당기순이익(E_t)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0283(0.0275)와 0.0604(0.0347)로 감리지적 전의 차기이익(E_{t+1})과 당기순이익(E_t)의 평균(중위수)인 0.0029(0.0144)와 0.0500(0.0225)에 비해 약간 높다. 영업현금흐름(CFO_t)의 평균(중위수)은 유사하며 총발생액(TA_t)의 평균(중위수)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자산규모($SIZE_t$)는 감리지적 후에 약간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LEV_t)의 평균(중위수)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전체표본 및 집단별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당기순이익과 이익구성요소는 차기순이익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차기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가 감리지적 전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해 감리지적 후 표본과 전체표본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감리 지적기업에서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 후에 이익지속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Panel A. 전체표본					
	E_{t+1}	E_t	CFO_t	TA_t	$SIZE_t$
E_t	0.2353 0.0017				
CFO_t	0.4078 <.0001	0.0889 0.2409			
TA_t	-0.1991 0.0081	0.5759 <.0001	-0.7554 <.0001		
$SIZE_t$	0.0107 0.8885	0.0584 0.4412	-0.0124 0.8700	0.0451 0.5519	
LEV_t	-0.1275 0.0918	-0.0684 0.3670	-0.0831 0.2728	0.0289 0.7037	-0.0863 0.2550

〈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계속)

Panel B. 감리지적 전 표본					
	E_{t+1}	E_t	CFO_t	TA_t	$SIZE_t$
E_t	0.1102 0.3673				
CFO_t	0.4217 0.0003	-0.0464 0.7050			
TA_t	-0.2128 0.0791	0.7573 <.0001	-0.6751 <.0001		
$SIZE_t$	-0.0987 0.4198	-0.3486 0.0033	-0.0021 0.9865	-0.2471 0.0407	
LEV_t	-0.1556 0.2019	-0.0722 0.5556	0.0304 0.8045	-0.0477 0.6972	0.2797 0.0199
Panel C. 감리지적 후 표본					
	E_{t+1}	E_t	CFO_t	TA_t	$SIZE_t$
E_t	0.3208 0.0008				
CFO_t	0.4102 <.0001	0.1862 0.0549			
TA_t	-0.2092 0.0306	0.3926 <.0001	-0.8278 <.0001		
$SIZE_t$	-0.0417 0.6696	0.0640 0.5122	-0.0146 0.8814	0.0544 0.5778	
LEV_t	-0.1124 0.2490	-0.0632 0.5176	-0.1541 0.1129	0.0987 0.3119	-0.1200 0.2182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2.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회귀모형 2와 회귀모형 3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의 질이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 2는 이익의 질의 대용치인 이익지속성이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높을 것이라는 보조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이익(E_{t+1})을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당기이익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E_t$)에 회귀하는 다중회귀모형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모형 3은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감리

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높을 것이라는 보조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이익(E_{t+1})을 감리지적기업에 대한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총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TA_t$)에 회귀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감리지적기업에서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 후에 이익지속성이 높은 이유가 발생액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모형 2의 경우 관심변수인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당기이익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E_t$)의 회귀계수(t -값)는 0.3622(2.99)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형 3에 대한 결과를 보면 관심변수인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총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TA_t$)의 회귀계수(t -값)는 0.3184(2.72)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감리지적기업에서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 후에 보고된 회계이익의 질이 높으며 그 원인이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높은 지속성에 기인한다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모형2 : $E_{t+1} = \beta_0 + \beta_1 E_t + \beta_2 VD \cdot E_t + \beta_3 SIZE_t + \beta_4 LEV_t + \epsilon_{t+1}$

모형3 : $E_{t+1} = \gamma_0 + \gamma_1 CFO_t + \gamma_2 TA_t + \gamma_3 VD \cdot TA_t + \gamma_4 VD \cdot CFO_t + \gamma_5 SIZE_t + \gamma_6 LEV_t + \epsilon_{t+1}$

구 분	모형2		모형3	
변 수	계 수	t-값	계 수	t-값
Constant	0.0274	1.63	0.0107	0.66
E_t	0.0549	0.58		
$VD \cdot E_t$	0.3622	2.99***		
CFO_t			0.3309	2.82***
TA_t			0.0319	0.40
$VD \cdot TA_t$			0.3184	2.72***
$VD \cdot CFO_t$			0.2932	2.19**
$SIZE_t$	-0.0005	-0.76	-0.0004	-0.57
LEV_t	-0.0399	-1.59	-0.0297	-1.27
F-값	5.51***		8.72***	
수정 R^2	0.0935		0.209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변수의 정의)

$E_{t(t+1)}$ = t(t+1)년도 순이익

CFO_t = t년도 영업현금흐름

TA_t = t년도 총발생액(t년도 순이익 - t년도 영업현금흐름)

VD = 감리지적 전후더미(감리지적 후이면 1, 감리지적 전이면 0)

$SIZE_t$ = t년도 기말총자산의 자연대수

LEV_t = t년도 부채비율(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한편 모형 3에서 감리지적 전후더미와 영업현금흐름의 상호작용변수($VD \cdot CFO_t$)의 회귀계수 (t -값)도 0.2932(2.19)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감리지적 후에 영업현금흐름의 지속성도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모형 2와 모형 3에 대한 수정 R^2 는 0.0935와 0.209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산의 결론을 요약하면 감리지적기업은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 후에 보고된 회계이익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리지적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시행된 외부감사 감리제도가 이익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 경영자가 임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기가 쉽고 보고된 이익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감사보고서가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회계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감사보고서감리가 시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최 관과 백원선 1998 ; 박종성 1999)에 의하면 감리지적기업은 재량발생액이 크며, 이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나타낸다. 또한 회계정보에 이익조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 회계이익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이익 정보에 대해 감리지적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강화될 경우 감리지적 이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정도 감소 혹은 감사품질 증가 등으로 이익조정 행위가 억제된다면 이익지속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지속성이 감리지적 이후에 증가되는지를 검정함으로써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이익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리지적기업의 보고된 회계이익의 지속성이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이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모두의 지속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보고서 감리지적으로 회계이익의 질이 감리지적 전에 비해 감리지적조치 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리지적으로 인해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억제되었음을 시사한다.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익지속성 차원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민 · 김상일 · 이호영. 2009. “감사품질의 대응치와 발생액의 질의 상관관계”. 회계학연구 제34권 제2호 : 1 - 43.
- 김문철 · 최 관. 1999. “이익의 질의 개념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221 - 249.
- 노준화 · 배길수. 2004. “회계실패사태 분석 및 회계실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경영환경, 회계환경, 감사환경 및 감리환경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155 - 176.
- 박종성. 1999. “피감사회사 특성과 감사인 특성을 이용한 감리지적 예측”. 회계학연구 제24권 제1호 : 1 - 32.
- 백원선. 2008. “4분기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회계학연구 제33권 제2호 : 111 - 144.
- 서승철. 2011.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 327 - 347.
- 손성규 · 박종성. 1998. “감리지적의 현황과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07 - 131.
- 이성희. 2009. “감리와 감사품질 :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9권 제3호 : 123 - 156.
- 이재은. 2008. “감리양정기준 시행 및 중요성기준 변경과 이익조정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3권 제3호 : 189 - 227.
- 정태범. 2008. “우리나라의 회사에 대한 감리조치방법의 실효성 검토”.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323 - 352.
- 최 관 · 백원선. 1998.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33 - 161.
- 최 관 · 최국현. 2003.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감리지적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 211 - 244.
- Calegari, M. “The Effect of Tax Accounting Rules on Capital Structu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1) : 2000, 1 - 31.
- Francis, J., R. LaFond, P. Olsson, and K. Schipper. 2004. “Costs of equity and earnings attributes”. *The Accounting Review* 79 : 967 - 1010.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 - 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 No. 1 : 137 - 166.
- Palepu, K., J. Healy, and V. Bernard. 2000. “The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using financial statements”.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Cincinnati, Ohio*,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 - 521.
- Revsine, L., D. Collins, and W.B. Johnson. 1999.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 Schipper, K. and L. Vincent. 2003. “Earnings quality”, *Accounting Horizons* 17 : 97 - 110.
- Sloan, R. 1996. “Do stock prices fully reflect information in accruals and cash flows about future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71 : 289 - 316.

Effectiveness of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 Focusing on Earnings Persistence -

Seung Cheol Seo* · June Bok W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control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and increase the earnings persistence or not. The purpose of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is to monitor the audit results and eventually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Prior studies suggested that the firms indicated by reviewing the audit report show more highly managed earnings relative to those not indicated. Those indicated firms show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induce artificial earnings elevation. The earnings management is not persistent in nature. So the earning management is possibly inferred having adverse effects on earnings persist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udit report review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and the earnings persistence.

Earnings persistence is defined as the covariance between the current year earnings and the next year earnings divided by the variance of current year earnings. As the earnings of the indicated firms are supposed to be managed, the earnings persistence is doubted to be lower. But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indicated firms is expected to be controlled after indication, the earnings persistence would be increased after indicatio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inference be true or not, the paper hypothesizes the earnings persistence would be improved after audit report indication.

The sample for the test consists of 176 firm-years ended in December from 2000 through 2009, trad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The test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arnings persistence after indication be significantly improved. The improved earnings persistence of the indicated firms suggests that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would control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n increas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ould be helpful for the FSS setting supervisory policies for successful audit report review system.

〈Key words〉 audit report review system, earnings persistence, earnings management, audit quality

*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ycos@hanmail.net, primary author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bwee@chonnam.ac.kr, corresponding author